

口腔外科學의 開拓者 James Edward Garretson (1828-1895)

資料提供 : 奇昌德 齒科醫院
奇 昌 德

1800년초에는 미국에서도 의사와 치과 의사의 양성기관이 분리되어 있지않고 임상으로서 의사와 치과 의사의 구별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치과 의사들중에는 치과 의학의 전문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개인으로 제자양성을 하고 있는 치과 의사들도 있었다. 이 무렵 Horace H. Hayden는 New York의 치과 의사 James Greenwood의 영향을 받아 1800년 치과 의사로서 Baltimore에서 개업을 하고 있었다. 그는 40년간의 치과 의술로서의 사회봉사를 하는 동안 Maryland대학 의학교에서 기초 의학 강의를 청강하고 자기의 진료소에 야간강습소도 설립하여 치과 지망 학생의 지도를 하는 한편 생리학 또는 병리학을 연구하여 의학 잡지에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학자로서의 활동이 한 때는 Maryland대학 의학교에서 치과 강의의 강의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이에 영향을 받은 Chapin A. Harris도 치과 의사로 길을 선택하고 Horace H. Hayden을 따라 Baltimore에서 영주하기로 하고 Dr. Hayden을 도와 Maryland대학 의학교에 한 분과로서 치과학

강좌를 설치하여 치과 전문의 의사 양성을 계획하였으나 의학교의 이사회에서는 이를 반대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1840년 2월 1일 Maryland주정부의 허가를 얻어 Baltimore에 독립된 치과 의학교(Baltimore College of Dental Surgery)의 설립을 보았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치과학의 분과가 크게 치과 치료학(Operative Dentistry), 치과 기공학(Mechanical Dentistry), 구강외과(Oral Surgery) 정도로 나누어져 있었을 뿐이고 각과의 전문 전문의사도 확실하지 않았다.

이러한 시기였으나 이미 구강 영역만을 전문으로 개업하고 있는 의사가 있었다. 즉 West Virginia 주 Wheeling의 Simon P. Hullihen이 있는데, 이 의사는 외과 진료를 악구강 질환에 한해서 구개, 구심의 기형, 또는 상악동, 악골의 염증이나 농포, 종양, 구개암 또는 육종들만을 취급하고 있었다. 이러한 진료의 전문화는 최초의 구강외과의 전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의사를 구강외과의사라고는 하지 않았다. 이 S.P. Hullihen이 1857년에 사

망하였으나 이 시기에는 이미 구강 영역만의 진료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외과 의사가 출현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Simon P. Hullihen과 직접적인 연계는 없었으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1828년 Delaware주 Washington에서 출생하고 의학과 치의학을 전공한 후에 Philadelphia해부학교에서 해부학과 외과학의 강사로 있던 James Edward Garretson이 1862년 Philadelphia치과 의학교로 옮기게 되면서 치과 학생에게 외과학의 원리와 실지 임상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는 곧 교수로 임명되었다. Philadelphia치과 의학교의 일원이 되었지만 구강 영역의 외과를 외과학의 일부분으로만 취급하고 경시하는 분위기여서 외과 의사인 James Edward Garretson은 구강 외과 자체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별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James Edward Garretson은 구강 영역의 외과학이라는 특수한 전문 분야를 확립하기 위한 의도로 Philadelphia치과 의학교에 외과학을 독립시키고 「구강 영역의 외과학」이라고 하여 정규의 과목으로 삼입시키면서 이 새로운 전문 과목

을 「口腔外科學 : Oral surgery」라 명명하였다. 이 용어가 시초이며 최초의 구강외과의 수업이 된 셈이다. 그러나 보수적인 외과의사들은 이 사실을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외과에서는 치과의사에게 구강외과라는 외과의 일부분을 빼앗긴다고 전제하고 전문과목의 독립을 철저히 반대하고 나섰다.

James Edward Garretson은 외과와 치과의 단절상태까지 이르게 됨을 두려워 하며 치과의사는 외과적, 의사는 치과적지식이나 기술의 부족이 초래하는 복잡한 구강영역의 질환은 때때로 이들로 인하여 불행을 초래케 하는 수가 많다고 예리하게 지적하는 한편 여기서 일어나는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구강외과는 절대로 분리가 아니라 도리어 서로의 연계적 작용을 할 전문과목이라고 설득있는 논리로 많은 외과의사임으로 그의 구강외과의 전문과목의 주장은 치과영역에서의 분과라기보다는 구강외과라는 특수독립분과의 성립에 더욱 역점을 둔 것 같았다. 하여간에 결과적으로는 그의 주장이 채택되어 미국의학회에서도 독립분과로서 인정을 받게 되어 구강외과학회가 발족되게 되었다. 그러나 회칙의 회원자격은 반드시 의사이며 치과의사라는 엄격한 자격규정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보아서 James Edward Garretson의 의사는 어디까지나 지가의 소신대로 즉 구강외과학은 치과의학의 일부가 아니라 치과의 학이야말로 구강외과의 일부로 다 시말하면 구강외과학은 의학의 일부로서 치과의학이든 구강외과의

일부이다. 따라서 치과의학은 의학의 한분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삼단논법을 절대로 굽히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치과의학의 구강외과라기보다는 의학과 치과의학의 교량역할로서의 독립분과로서 의학회에 속한 구강외과학회를 창설한 것이다.

1869년 James Edward Garretson은 Pennsylvania대학의 의학교부속병원 구강외과의로 임용되어 최초의 구강외과의로서 인정되었고 공인된 구강외과의로서 구강외과학의 확립과 보급에 마음껏 활약하게 되었다.

이 해(1869)에 James Edward Garretson은 「口腔, 顎, 關聯組織의 疾患에 關한 논문 : A treatise on the Diseases and Surgery of the Mouth, Jaws and Associated Part.」를 발표하고 1873년에는 이 책을 대폭 증보하여 「口腔外科學體系 ; 口腔, 顎, 關節組織의 疾患과 外科의 熱考 : A System of Oral Surgery being A Consideration of the Diseases and Surgery of the Mouth, Jaws, and Associate Parts」라는 이름으로 1,091면에 그림이 370매가 들어있는 거대한 성서로서 출판하였다. 이 책은 최초의 口腔外科學書로 치과의학계에 출현한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은 51장으로 되어 구강의 해부로부터 시작하여 치열, 치아맹출, 치조농루, 충치의 치아우식증의 치료, 충진, 근관충진, 치통, 부정교합, 상아질노출증, 의치, 치은과 치아주의조직질환, 등의 치아치료학과 기공학관계를 기술하고 구강외과학에 관하여서는 발치, 국소마취, 전신마

취, 타석증, 타액류, 편도선, 악골카리에스, 악골괴사, 구강외상, 악골골절, 악관절탈구, 에프리스, 신경통, 설질환, 종양, 구강종양, 상피종, 구심협부의 수술, 구개순수술, 구개결손의 수술, 악골절제술등을 망라하고 있고 구강종양에 관해서만도 5장에 걸쳐 기술하고 있다. 이 내용으로 보아 James Edward Garretson은 그의 나름대로 구강외과학의 개념에 따라 의사이건 치과의사이건 누구나가 구강외과의 학식과 기술의 필수수교본으로 저술한 것이었다. 서문에 「치과의사이건 의사이건 학식과 기능을 가지고 구가아외과학을 대하면 반드시 최고의 성과를 얻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질 것이다... 최고의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그 자신의 법칙을 통하여 자연히 습관으로 되어 가는 것이다. 장래의 의업이 어찌하게 되어 가던 안심하고 장래에 맡길 것 밖에 없다.」라고 의사나 치과의사에 관계없이 자신이 바르게 익힌 법이고 습관화가 되면 최고의 성과를 얻을 것이라고 구강외과를 사이에 놓고 의사와 치과의사의 대립에는 상관없이 자연의 흐름에 따라 능력을 발휘하라는 James Edward Garretson의 소신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다.

이 「口腔外科學體系」는 그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 초판을 내놓고 16년간에 6판까지 개정출판하였다. James Edward Garretson이 개정을 끝내고 출판을 하지 못했던 개정 6판은 사망후 3년에 출판되었는데 1,084면에 그림이 971매가 들어있는 큰책이었다.

「口腔外科學體系」는 구강외과학

이러기 보다는 치과의학전서에 가
까우나 그가 항상 주장하는 치과
는 구강외과의 일부라는 변함없는
소신의 표현으로 평생의학의 한분
과로서의 구강외과라는 위치를 굳
히는데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고
수하였다.

이러한 James Edward Garret-
son의 교육을 받은 제자들은 구강
외과를 전공으로 각 치과의학교에
서 구강외과학 전임으로 부임되어
구강외과는 치과대학에서의 정규
과목으로 위치를 굳히게 되고 전
문의로서 치과의학계에서 주요임

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들은 거의가 의사이면서 치과의사
인 자들로 치과의사로서의 구강외
과전문은 치과외과(Dental Sur-
gery)라는 국한된 구강영역을 담
당하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James Edward Garretson이
1880년 Philadelphia치과의학교의
교장으로 부임하여 15년간을 근무
하면서 많은 치과의사로부터 구강
외과학은 의사, 치과의사의 두가
지 면허소유자만의 독점이라고 비
난을 받아 결국은 우울병으로 고

민하다 1895년 67세에 세상을 떠
났다.

James Edward Garretson의 영
향을 받아 또는 그의 조수로서 사
사하면서 구강외과전문의로 활약
한 의사들중에는 Matthew H.
Vryer., Truman W. Brophy.,
Thomas L. Gilmer., Chalmers
J. Lyons., John S. Marshall,
George V. I. Brown., Thomas
Fillerbrown. 등 치과계의 구강외
과를 제통적으로 확립시킨 학자들
이 있다.

보사부 제조허가 46호

금·은·백금·귀금속 합금



보성 합금

Austenal

A Nobelpharma Company

- Casting Gold Alloys
- Palladium Gold Alloys
- Porcelain Gold Alloys
- Austenal Precious Ceramic Dental Alloys
- Austenal Precious Crown & Bridge Alloys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465번지 TEL : 764-3411, 3024, 5967
크로바전화 : 080-023-2833
FAX : 745-2827